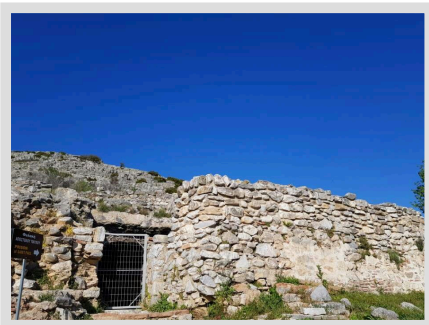


열한번째 이야기

마음의 자취를 따라가라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이 되어주는 사람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큰 복이다. 물론 그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분은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이시다.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성경에는 그 예수님을 따라 믿는 자들의 분이 되는 삶을 사신 분들이 나온다. 성경의 여러 책들을 쓴 사도 바울은 서신서들 곳곳에서 우리의 귀감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감옥

그가 복음을 들고 떠나면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전도자와 목회자의 삶을 살았던 자취를 따라가는 복된 여행을, 나는 최근 은혜 가운데 마쳤다. 많은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신 은혜의 시간들이었다. 돌아와서 성경을 읽는데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마다 배경이 그려지고 사건이 살아나며 감정이 색채를 입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중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힘들게 복음을 전한 교인들에 대한 그의 마음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의 첫 개척지인 빌립보에서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등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살전2:2)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가 그들 가운데 들어간 것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

고 핍박을 피해 베뢰아로, 아덴으로 피해야 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받은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당시 어떤 자세로 그가 사역에 임했는지를 회고한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배운다. 그는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그는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다고,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단언한다. 그는 사도로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살전 2:4-6).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사역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한지 자주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신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려는 순수한 동기로 시작된 일이, 세월이 가면서 변질되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 사람의 칭찬과 존경은 사역자에게 격려와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되게 되면 교만의 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명령 받은 일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다 한 것 뿐이라'라고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눅 17:10).



데살로니가 항구

현재 이 땅의 교회들에서 생기는 문제의 뿌리는 대부분 거기에 놓여 있다. 지도자들의 야망이 교회에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다. 여행 중에 로마의 대형 성당들의 화려한 치장들과 조각상들과 이상화된 성물들을 보며, '주님이 과연 이곳에 임재하심을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인간의 생각과 눈에 맞추어 지어지고 권력의 표징이 되어버린 그 모습에는 사람의 영광이 더 크게 부각되어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구유에서 태어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사람의 칭찬과 명성을 거부하신 예수님께 맞추어야 한다. 그 절정인 십자가에 항상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바울은 이어서 사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마음가짐을 가르쳐준다. 그는 자신이 유모와 같은 유순한 태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양육했다고 말한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으며 그들을 사랑하여,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고 말한다. 바울은 가르치는 자의 권위보다는 온유함으로, 사랑과 헌신의 태도로 그들을 우리가 섬겨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들은, 한때 스쳐가며 숫자로 기록될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사셔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소중한 영혼임을 잊으면 안 된다.

섬김에는 자기희생이 따른다.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때 사역의 열매가 풍성해진다. 그들의 형편과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놓아야 한다. 최근에 본 감동적인 영상에는 짐 심발라 목사가 집회가 끝나 피곤한 몸을 쉬려 했을 때, 한 남루하고 냄새나는 노숙자 청년을 만난 이야기가 있었다. 목사는 돈을 주어 보내려 했지만, 그는 돈을 원하지 않으며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말했다. 목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즉시 눈물로 회개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지독한 냄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일을 맡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끝으로 바울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살전 2:10)라고 말한다.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흠 없이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의 삶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면 그의 말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BEE의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BEE의 과정을 배우고 섬기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고 옹고 흠 없이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말씀과 교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살전 2:12)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다.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도록 섬겨야 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과 사랑과 진실함으로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기대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신다.
(글: 이성애, 편집: 이경주)

BEE 소식

- 5월 17일 비타민C 프로그램으로 온누리교회를 방문한 분들에게 조문상 선교사님께서 BEE를 소개했고 그 중 코트디부아르에서 오신 분들과 불어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12분이 본부를 방문하여 BEE 사역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인호 목사님이 함께 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고 이 기회를 통해 그 곳에 BEE 사역이 더욱 편안하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